

## 1.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

초창기 바이마르공화국(1919년 8월 수립)에는 연합국에게만 유리하게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한 정부에 대한 반감,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 혼란,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과 실업난 등으로 인한 생활고 적지 않은 쿠데타 시도 등 혼란이 계속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기는 1923년 최고조에 달했으나 외교정책의 성과로 1924년 9월에는 미국의 원조계획인 도스 안이 성립되어 전후 배상문제가 해결되고, 외국 자본 등을 차입(주로 미국으로부터)하면서 최선의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며 세계적인 공업국으로 발돋움 하기 시작하는 등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 학문 분야도 눈부실 만큼 발전하여 ‘황금의 20년대’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 2. 독일/오스트리아를 강타한 미국 뉴욕 발 경제 공황의 여파

그러던 중 1929년 10월 25일 소위 ‘검은 금요일’이라 불리는 날 발생한 뉴욕 증권가의 주가 폭락을 시작으로 전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 미국으로부터 대규모로 차관을 도입한 독일/오스트리아는 미국 발 경제 공황의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으며, 실직한 가장들이 절망하여 자살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다. 농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농민들 역시 생계를 위해 농지와 가옥을 경매에 부쳤다.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청 앞에 선 사람들의 줄은 좀처럼 줄어들 줄을 몰랐다.

## 3. 나치스의 등장 및 세력 확장 그리고 집권

① 등장 및 세력 확장: 1930년대 초 독일/오스트리아의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당(NSDAP:나치당)은 차근차근 세력을 확장하였다. 1928년까지만 하더라도 하원의 의석점유율이 2퍼센트 대에 머물렀지만 1930년에는 18.6퍼센트, 1932년에는 33.7퍼센트에 이르러 총 28개 정당 가운데 가장 높은 의석 비율로 원내 제 1당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반해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독일사민당 1930년까지만해도 원내 제 1당이었으나, 1932년 11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NSDAP 에 10퍼센트 이상 뒤진 20.7퍼센트의 의석을 얻는데 그쳐 제 1당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② 집권: 1933년 1월 30일 독일제국의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NSDAP의 당수 아돌프 히틀러를 제국의 수상으로 임명하고 만다.

## 4. 세계 제 2차 대전

① 아돌프 히틀러(1889-1945):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히틀러는 모국인 오스트리아와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낸 비인에 대해 (모국이기 때문에 가질 수 밖에 없는)애정과 증오의 양가 감정을 가진 인물이었다. 반 유대/반 슬라브 정서: 1913년 군 징집을 피해 뮌헨으로 도망치기 전까지 히틀러는 비인에서 범게르만주의와 유대인 배척주의 서적을 읽으며 슬라브족(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던 동유럽 지역의 원주민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키워던 듯하다. 슬라브족과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나치당 당수로 권력을 잡은 후 ‘강력한 독일제국, 위대한 독일제국’ 건설이라는 환상과 결합되며 엄청난 범죄를 야기시킨다.

**베를린 문서사건:** 1933 년 독일의 정권을 잡은 히틀러의 나치당은 5 월 10 일 베를린에서 문서 사건을 일으켰다. 독일의 선전장관인 괴벨스는 국민들의 획일화와 세뇌를 위해 '비독일인의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책을 불태웠다. 1933 년 5 월 10 일 독일 대부분의 대학에서 나치당원들이 성화를 들고 광장을 돌면서 비독일적인 서적에 대한 문서 행사를 벌였다. 나치당을 추종하는 학생들은 책을 광장의 중앙에 타오르는 불 속으로 책을 집어 던졌다. 나치당은 독일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불순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독일인의 정신을 정화시킨다'는 미명 하에 유대인 학자, 작가들의 책과 함께 가톨릭에 비판적이었던 작가들과 좌익세력, 종교 개혁가들의 책을 골라 불태웠다. 마르크스, 마르틴 루터, 에밀 졸라, 카프카의 책들이 이 사건으로 모두 불탔다. 이 사건으로 약 1 만 8000 여권의 책이 태워졌다.

② 독일제국의 오스트리아 합병(1938년 3월 12일): 독일제국으로 피신한 히틀러는 대 독일제국 건설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기 전 먼저 오스트리아를 합병한다. 오스트리아는 체코 슬로바키아를 공격할 경우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남유럽 진출의 발판 또한 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알프스 산맥이 자리한 오스트리아에는 천연자원이 풍부했으며, 1938년 당시 독일제국의 20배에 달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잘 훈련된 (말이 통하는) 병사들은 독일 제국 군대의 전력 증강에도 절실히 필요했다. 독일제국의 군대와 함께 히틀러는 1938년 3월 12일 새벽 마침내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었으며, 대부분 실업자들이었던 열혈 추종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비인에 도착한다. 다음날인 3월 13일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수상에게 강제로 독,오 합병에 관한 법안 초안을 발표하게 한다. 이로써 1871년 비스마르크가 이룩한 소독일주의 통일(오스트리아 제외)이 종식되고 히틀러에 의해 ‘대 독일제국’이 수립되기에 이른다.

### 제 3 제국 Das Dritte Reich 명칭의 유래:

제 1 제국: 신성로마제국

제 2 제국: 1871 년 소통일안으로 통일되었던 독일 제국

제 3 제국: 히틀러-나치당이 세운 (불법) 정부 - 천년 이상 갈 것이다!

③ 제 3차 세계대전 발발: 전쟁은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나치 독일군이 폴란드

의 서쪽 국경을 침공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군이 1939년 9월 17일 폴란드의 동쪽 국경을 침공하면서 시작된다.

5. 홀로코스트 : 홀로코스트(Holocaust, 그리스어 hólos(전체)+kaustós(타다)에서 유래)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당이 독일 제국과 독일군 점령지에서 걸쳐 계획적으로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천1백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한 사건을 일컫는다. 희생자 중 유대인은 약 6백만여명으로, 그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9백만 명의 유대인 중 약 2/3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유대인 어린이 약 백만 명, 여자 약 2백만 명과 남자 약 3백만 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은 독일 및 독일 점령지에 있던 약 4만여개의 시설에 집단 수용 및 구금되었다가 살해당하였다.

학살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먼저, 1935년 제정된 뉘른베르크 법을 시작으로 유대인을 사회에서 배척하는 각종 법령들이 세계 대전 발발 전에 이미 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할 수용소를 미리 지었으며, 수감자들을 각종 노역에 동원하였다. 희생자들 대부분은 과도한 노역으로 인하여 과로사/병사하였다고 한다. 이 밖에도 동유럽 점령지에서는 특별행동부대라는 불법 무장 단체가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과 정치사범을 총살했다고도 전해진다.

독일 군대는 유대인과 집시들을 먼저 게토에 수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후 ‘쓸모 없는 이들을’ 화물 열차에 실어서 집단 학살 수용소로 이송했다. 수용소로 가는 화물 열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아남은 이들은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노역하다가 차례 차례 가스실로 보내져,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① 안네 프랑크(1929-1945): 1940년, 제2차 세계 대전은 서부 유럽으로 확대되어 나치 독일은 중립국가임에도 네덜란드를 점령하였고 곧 네덜란드 내의 모든 유대인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오토 프랑크는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한 사건이 가족들을 해외로 망명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미국 대사관이 나치 독일의 네덜란드 점령으로 폐쇄되어 미국으로 망명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결국 안네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암스테르담 시내의 과일점 재료 공장 사무실에 있는 창고를 책장으로 막고 1942년 7월 5일에 자신의 가족을 피신시킨다. 이때부터 비밀 자택이라고 이름붙인 은신처에서 2년간 숨어 살면서 안네는 일기장 키티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안네의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안네는 1944년 8월 4일 밤, 익명의 밀고를 받은 나치의 게슈타포가 이들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8명 전원을 체포하고 안네의 가족을 나치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기가 3일 전인 8월 1일까지 일기를 썼다.

② 발터 벤야민(1892-1940): 유대계 철학자, 문학평론가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vier Fassungen 1935-1939). In: *Zeitschrift für Sozialforschung*. 1936 [franz. Übers.] -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Das Passagen-Werk*》 (1928-1929, 1934-1940), hrsg. von Rolf Tiedemann, 2 Bände, Suhrkamp Frankfurt am Main 1983 [Taschenbuchausgabe] - 아케이드 프로젝트 외

발터 벤야민의 최후: 그와 함께 국경을 넘었던 호르크하이머 연구소 일원이었던 아르카디 구를란트(Arkadi Gurland)에게 보낸 편지 중

„[...]당신도 그 사이에 벤야민에 관한 우리의 끔찍한 체험을 틀림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와 호세, 그리고 나는 함께 여행하기 위해 마르세유를 떠났지요. 나는 마르세유에서 그와 상당히 친해졌고 그는 나를 동반자로 적당하다고 여겼어요. 피레네 길에서 우리는 비어만(Birmann), 그녀의 언니 리프만(Lipmann)부인, 그리고 프로인트 부인을 만났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열두 시간은 아주 끔찍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길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가끔은 손발을 다 써서 기어 올라야 했어요. 저녁에 우리는 포르 부(Port Bu)에 도착했고 입국 도장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갔어요. 네 명의 여자와 우리 셋은 한 시간 동안 앉아 울며 불며 관리들 앞에서 절망적으로 애원했고 우리의 완전한 서류들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모두 국적이 없었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며칠 전에 국적이 없는 사람들을 에스파냐로 입국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른바 감시하에 하룻 저녁 호텔에 묵는 것을 허락했고, 우리를 다음 날 프랑스 국경까지 데려다 줄 경찰관 세 명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나는 미국 서류 말고는 다른 서류는 갖고 있지 않았고, 호세와 벤야민에게는 프랑스 국경에 되돌려 보내진다는 것은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주 낙담하여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침 일곱 시에 리프만 부인이 나를 내려오라고 불렀어요. 벤야민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지난밤 열시에 많은 양의 모르핀을 먹었는데 내가 이 일을 병으로 진술하도록 해보라고 말했고, 나한테 쓴 편지와 아도르노 TH.W에게 보낼 편지를 내게 건네주었어요. 그러고서 그는 의식을 잃었어요. 나는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는 뇌졸중으로 진단했고, 벤야민을 병원이 있는 피구에라스로 옮기자는 나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 자기는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벤야민이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날을 경찰, 면장, 판사를 만나면서 보냈는데, 이들은 내가 가진 모든 서류를 검사했고 에스파냐의 도미니쿠스 교단 앞으로 보내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나는 신부님을 불러와야 했고 그와 함께 한 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나는 호세와 나 자신 때문에 끔찍한 불안에 떨면서 사망 진단서가 다음날 아침에 교부될 때까지 견뎌 냈어요. 이미 얘기 됐듯이 경찰들은 벤야민이 죽은 날 아침에 네 명의 여자를 데려갔어요. 경찰들은 호세와 나를 호텔에 남겨두었는데, 내가 벤야민과 함께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입국 비자도 없고 세관 검사도 받지 않은 채 그곳에 머문 것이죠. 세관 검사는 나중에 호텔에서 이루어졌어요. [...] 나는 당신한테 정말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묘사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그

때 상황에서 나는 벤야민이 아도르노와 내게 쓴 편지를 읽은 뒤에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 편지에는 다섯 줄 정도 써어 있었어요. 자기가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내가 그에게 자기에 관한 얘기를 전해주도록 할 것이고 자기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전해줄 거라는 내용이었어요.”(게르숨 솔렘 지음, 최성만 옮김: 한 우정의 역사, 발터 벤야민을 추억하며, 서울:한길사, 2002, 384-386쪽)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게는 지금 끝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내 삶이 끝나는 걸 알지 못하는 피레네 산맥에 처한 작은 마을입니다. 내 친구 아도르노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쓰고 싶었던 것들을 다 쓰기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지 않군요.”

## 6. 그리고 종전

스탈린그라드 전투(1942년 8월 21일- 1943년 2월 2일): 계속 상승세를 타던 독일군 대패한 후 전세가 역전된다. 이어서 미국 참전, 미국 주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한 후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해방된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후 연합군이 베를린을 포위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5월 8일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히틀러 - 항복 일주일 전 자살)함으로써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난다.

### \*참고문헌

임종대 외: 독일이야기 1, 서울: 거름 2000

황윤영, 김미경: 독일문화 오디세이, 서울: 글로벌콘텐츠, 2016

게르숨 솔렘 지음, 최성만 옮김: 한 우정의 역사, 발터 벤야민을 추억하며, 서울:한길사, 2002

제바스티안 하프너 지음, 안인희 옮김: 히틀러에 붙이는 주석, 파주:돌베개, 2014.

슈테판 마르크스 지음, 신종훈 옮김: 나치즘, 열광과 도취의 심리학, 서울:책세상, 2009